



일본 · 말레이시아 FTA 타결

정 성 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권 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주요 내용

- 일본의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말레이시아 라피다 통상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음. 또한 5월 25일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의 일본방문시 FTA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상문안 작성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양국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광공업품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하여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인하를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말레이시아는 농업분야에서 양보하여 일본의 농산물 개방분야를 새우, 과일의 일부 품목, 바나나 등에 국한함. 또한 일본은 자동차부품, 인재육성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임.
- 일본은 2004년 11월에 필리핀과의 FTA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협상도 마무리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태국과의 FTA협상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은 소극적인 농업개방정책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ASEAN 정상회의(2004년 12월)에서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음. 현재 ASEAN은 우리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일·말레이시아 FTA협상 타결로 일본의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ASEAN FTA협상의 연내 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일본 · 말레이시아 FTA협상의 추진현황

- 일본은 2004년 1월부터 진행시켜온 말레이시아와의 FTA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음. 양국 정상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협정문안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일본의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말레이시아 라피다 통상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광공업품 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양국간 FTA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
- 이에 따라 5월 25일 압둘라 총리의 일본방문시 양국 정상간에 FTA 체결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로써 일·말레이시아 FTA협상은 최종적인 마무리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
- 양국 정부는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금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광공업품의 자유화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이가 좁혀져 타결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자동차, 철강 등 광공업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말레이시아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말레이시아는 이 품목들의 자유화가 자국산업(예: 국민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그 자체에 반대해왔음.
- 금번 장관급 회담에서 일본은 자동차, 철강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등 자유화조치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양보하여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양국 FTA에 대한 금번 장관급 합의는 5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조급하게 진행시킨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일 · 말레이시아 FTA는 당초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시켜왔으나 이미 목표시한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금번 합의는 자유화의 내용보다는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목표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양국간 합의의 주요 내용

- 일·말레이시아 FTA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양국의 주요한 시장개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광공업분야에서는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주요쟁점이 되어 왔음. 금번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었음. 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철강제품: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말레이시아)
 - 자동차부품: 5년 이내에 관세철폐(말레이시아)
 - 기술협력: 일본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기술을 제공함(일본)
 - 인재육성: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인재육성에 협력함(일본)
 - 둘째, 농림수산물 분야에서는 이미 2004년 말에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음. 이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합판: 말레이시아에서의 불법벌채가 사라진 단계에서 재협약(양국)
 - 새우와 과일의 일부 품목: 관세철폐(일본)
 - 바나나: 1천 톤의 무관세 수입쿼터 제공(일본)
 - 유제품 및 파인애플: 예외품목(일본)
 - 셋째,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정비,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관련되는 협의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비즈니스 환경정비의 협의기관을 설치
 -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는 계속적으로 협의
- 일·말레이시아 FTA에서 달성된 자유화조치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광공업품의 자유화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일본은 이미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 중 88%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광공업품 자유화는 말레이시아와 관련되는 문제임.
 -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는 10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도 5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관세철폐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둘째, 말레이시아의 관세철폐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부터 시행되며 이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자동차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민차 시장에 영향이 작은 대형차의 관세철폐를 시작으로 대상차종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임. 강판의 경우 말레이시아 산업에 영향이 작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2004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관세율은 자동차가 최고 200%, 강판이 50% 정도임.
- 셋째, 농림수산품의 자유화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농림수산품의 경우, 새우와 과일의 일부 품목만이 관세철폐의 대상이 되어 있을 뿐이며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에 대해서는 불법벌채를 이유로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유제품이나 파인애플은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어 있음.
- 넷째, 서비스, 투자 및 인력이동에 대한 양국의 자유화 조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서비스, 투자 자유화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협의하기로 되어 있을 뿐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지 않고 있음.
- 다섯째, 말레이시아는 농업부문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였고 일본은 광공업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일본에 대하여 합판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결국 말레이시아의 양보로 농업부문에서 타결이 이루어졌음.
 - 한편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고율관세를 즉시철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말레이시아는 관세철폐 그 자체에 반대해왔음. 그러나 금번의 장관급 회담에서 일본이 양보하여 이 부문들에서 타결이 이루어졌음.

3. 일 · 말레이시아 경협 현황

■ 양국간 무역

- 2004년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약 1조 4천억 엔, 수입은 약 1조 5천억 엔으로 양국의 교역규모는 2조 9천억 엔임.
- 양국의 교역규모를 ASEAN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말레이시아는 태국(교역규모 3조 7천억 엔)에 이은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말레이시아는 일본이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싱가포르(교역규모 2조 6천억 엔), 필리핀(교역규모 1조 9천억 엔), 멕시코(교역규모 8천억 엔)보다 교역규모가 더 큼.

표 1.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규모(2004년)

(단위: 조 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4	1.5	1.9	0.7	1.5	2.2	1.0	0.9	0.6	0.2

자료: 일본 재무성

■ 양국간 투자

- 한편 양국간 투자를 살펴보면, 일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말레이시아에 약 1,785억 엔을 투자하고 있음. 이를 기체결국과 비교해보면, 말레이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그러나 일본은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의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간 FTA를 통해 현지진출 일본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말레이시아간의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의 자동차업체는 특히 이 점을 중시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관세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표 2. 일본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1999년~2003년, 누계 기준)

(단위: 억 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멕시코
1,785	4,378	4,395	2,936	2,202

자료: 일본 재무성

■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

-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공산품으로 전기기기(약 40%), 일반기계(약 16%), 금속 및 금속제품(약 11%), 수송기계(약 10%)의 수출비중이 높음.
- 수출품목을 보다 세분화해서 보면, 반도체 등 전자부품(25%), 철강(7.4%), 자동차(5.3%), 광학기기(3.8%), 자동차부품(3.3%) 등이 주력 수출품목임.
- 한편 말레이시아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은 액화천연가스(21%), 영상음향기기(14.3%), 사무용기기(13.3%), 통신기기(11.9%), 목재품(5.3%) 등임.

4. 일 · 말레이시아 FTA에 대한 평가

-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양국간 FTA협상¹⁾은 약 1년 5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이로써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되었음.
- 금번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ASEAN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됨.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태국과의 FTA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음.
- 첫째, 일본의 FTA 추진체제가 아직도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임. FTA협상을 담당하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등 성청간의 협조체제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현재 “경제연대협정 대외교섭실” (가칭)을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청간의 이해조정, 신속한 FTA협상의 추진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1) 일본정부는 2003년 12월 11~12일 ASEAN 정상들을 도쿄로 초청하여 “日·ASEAN 특별정상회의”를 주최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개별적으로 FTA협상을 2004년부터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음.

- 둘째, 농업문제, 인력이동의 자유화 등에 대한 일본의 보수적인 입장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 말레이시아와의 FTA에서도 농업부문의 개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셋째, 공산품 분야에서도 관세철폐 등의 자유화 정도가 일본기업이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산물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억제하면서 상대국에 공산품 분야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일·말레이시아 FTA의 합의내용도 자동차나 철강업계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과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2004년 11월 필리핀과의 FTA협상을 타결시켰고 금번에 말레이시아와도 협상을 타결 시킴에 따라,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ASEAN 주요국과의 FTA협상은 향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와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기간 중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FTA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일본은 ASEAN 10개국 전체와의 FTA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13일부터 도쿄에서 3일간 제1차 협상을 개시한 바 있음.
- ASEAN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볼 때, 일본의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속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SEAN은 우리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긴밀성이 높고,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자원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한편 ASEAN은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현재 FTA를 추진 중인 바, 이 국가들과 FTA 타결 시 우리 상품은 경쟁국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장점유율 하락과 함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표 3.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국가	진행 상황
싱가포르 · 뉴질랜드	2000년 11월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 체결
싱가포르 · 일본	2002년 1월 FTA 체결
싱가포르 · EFTA	2002년 6월 FTA 체결
ASEAN · 중국	2002년 11월 정부간 공식적인 합의, 2010년을 목표로 협상 중 - 선자유화조치 2004년 추진 개시, 2004년 10월 협상 타결
ASEAN · 인도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태국 · 인도	2002년 11월 FTA협상 개시, 2004년 9월 조기자유화 실시
싱가포르 · 호주	2003년 2월 FTA협상 체결
싱가포르 · 미국	2003년 5월 FTA협상 체결
싱가포르 · 인도	2003년 5월 FTA협상 개시, 2005년 4월 FTA 합의 예정
중국 · 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일본 · 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인도 · SEAN	2003년 10월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
한국 · 본	2003년 10월 공동연구 완료, 협상 중
한국 · 싱가포르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004년 11월 협상 종료
한국 · ASEAN	2004년 8월 공동연구 종료, 2005년 4월 2차 협상
태국 · 미국	2004년 6월 FTA협상 개시
태국 · 호주	2004년 7월 FTA 추진 서명, 2005년 발효
태국 · 뉴질랜드	2005년 7월 FTA 발효
일본 · 필리핀	2004년 11월 FTA협상 타결
중국 · 인도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보고서 제출
중국 · 호주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 종료
ASEAN · CER	2005년 2월 FTA 1차 협상
ASEAN · 일본	2005년 4월 FTA협상 개시
일본 · 말레이시아	2005년 5월 FTA협상 타결

주: 2005년 5월 현재.

자료: 권을 외(2003), p. 77을 토대로 작성.

- 일 · 말레이시아 FTA협상 타결로 일본의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 · ASEAN FTA협상의 조기타결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 · ASEAN 정상회의(2004년 12월)에서 FTA협상(2년내 타결을 목표)을 공식 개시기로 합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하였음.

- 그동안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통해 양측은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의견교환, 중·ASEAN 상품자유화 협정에 대한 검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협의, 원산지기준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비공식 WG을 통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SEAN과의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여 조기에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급한 협상 체결은 FTA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번의 일·말레이시아 FTA 타결은 그 하나의 예임.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낮은 FTA 체결은 그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므로 협상 타결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적정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